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36.58 (-20.30)	898.04 (-14.51)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863 (-0.002)	1327.80 (-3.30)



## 리스크 관리 '책임 배분'... 판단기준 모호, 실효성 글썽

### 마비되지 않는 금융사고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

〈下〉 제재보다 예방이 먼저

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임원별 책임명시 '책무구조도'  
충분한 노력 여부 증명 어려워  
금융당국 영향력 강화 우려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에서 횡령과 자금유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사고의 책임대상을 대표이사(CEO)와 임원으로 명확히 했다.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

다만, 충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CEO "몰랐다" 금지... 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더라도 금융사고 발생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는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고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다.

임원은 책임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사항을 파악·대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시 회사내 주요 책무에 책임임원을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중복·공백·누락하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임지는 임원이 다를 경우 책임은 대표이사가



러시아 출발 전 의장대 사열하는 김정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10일 자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행 열차에 탑승하기 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떠났으며 군 핵심 간부들이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진다.

대표이사는 또 임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마련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 금융사고 발생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한다.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 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35조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를 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내년에도 1%대" '韓 저성장' 경고

정부 비롯 국내외 기관 '비관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관이 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는 한국 GDP성장률이 지난해 2.6%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5% 미만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도 회의론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5곳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씨티그룹이 1.7%로, 기존 1.8% 예측보다 더 내렸다. JP모건의 전망과 같다. UBS는 1.7%로 이보다 더 낮고, HSBC(1.6%)와 노무라(1.5%)는 1%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스도 기존 2.3%에서 최근 2.0%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2.2%, 골드만삭스가 2.6%를 제시하는 등 8개 IB 중 3곳만이 2%대를 점치고 있다.

이들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1.9%다. 올해 2월 말(2.1%)에서 3월 말(2.0%)로 소폭 떨어진 뒤 평균치 2% 선은 결국 무너졌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베일 벗은 삼성판 생성형 AI... "개발 속도 30% 향상"

### 삼성SDS '리얼 서밋 2023' 브리티코파일럿·패브릭스 공개 "업무 전 영역 생산성 극대화"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가 '리얼 서밋 2023' 현장에서 생성형 AI 솔루션 도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가 기업의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초자동화) 혁신 선도에 나선다. 삼성SDS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브리티코파일럿(Brity Copilot)'과 '패브릭스(Fabrix)'는 기업 활동 전영역에 걸친 생성형 AI 도입을 돕고 생산성 극대화를 지향한다. (관련기사 3면)

삼성SDS가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리얼 서밋2023' 컨퍼런스를 열고 기업

용 생성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발표했다.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 브

리티 코파일럿과 클라우드 시스템에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인 패브릭스는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을 돕는다. 오픈AI의 ChatGPT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LLM(Large Language Model)과 간단히 결합해 업무 전영역 혁신을 끌어내고 동시에 뛰어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강력한 보안을 지원한다.

황성우 삼성SDS 대표는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는 앞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업무의 틀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며 "LLM은 변동성이 많은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기 때문

에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오피스 업무의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초자동화)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일, 메시지 영상회의, 데이터 저장 등 공통 업무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솔루션이다. 기본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로봇(RPA)이 단순 반복 업무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회의록을 작성하고 프로젝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한다. MS 365 코파일럿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결재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이종섭 국방 사표 수리 여부에 "인사 전 언급 않겠다" /사진 뉴시스  
▲ 당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약자복지 실현"

▲ 민주 과방위원, 여 단독 회의 강행에 "반헌법적 발상"  
▲ 여당, 민주 '태영호 징계안'에 "단식쇼 중인 이재명 심기 경호"



▲ 홍준표, '신원식 국방장관실' 겨냥 "군·검찰 정권 전리품 여기지 말라" /사진 뉴시스  
▲ 크렘린 "푸틴, 밤 늦게까지 EEF 일정"... 김정은 회담 13일 유력